



#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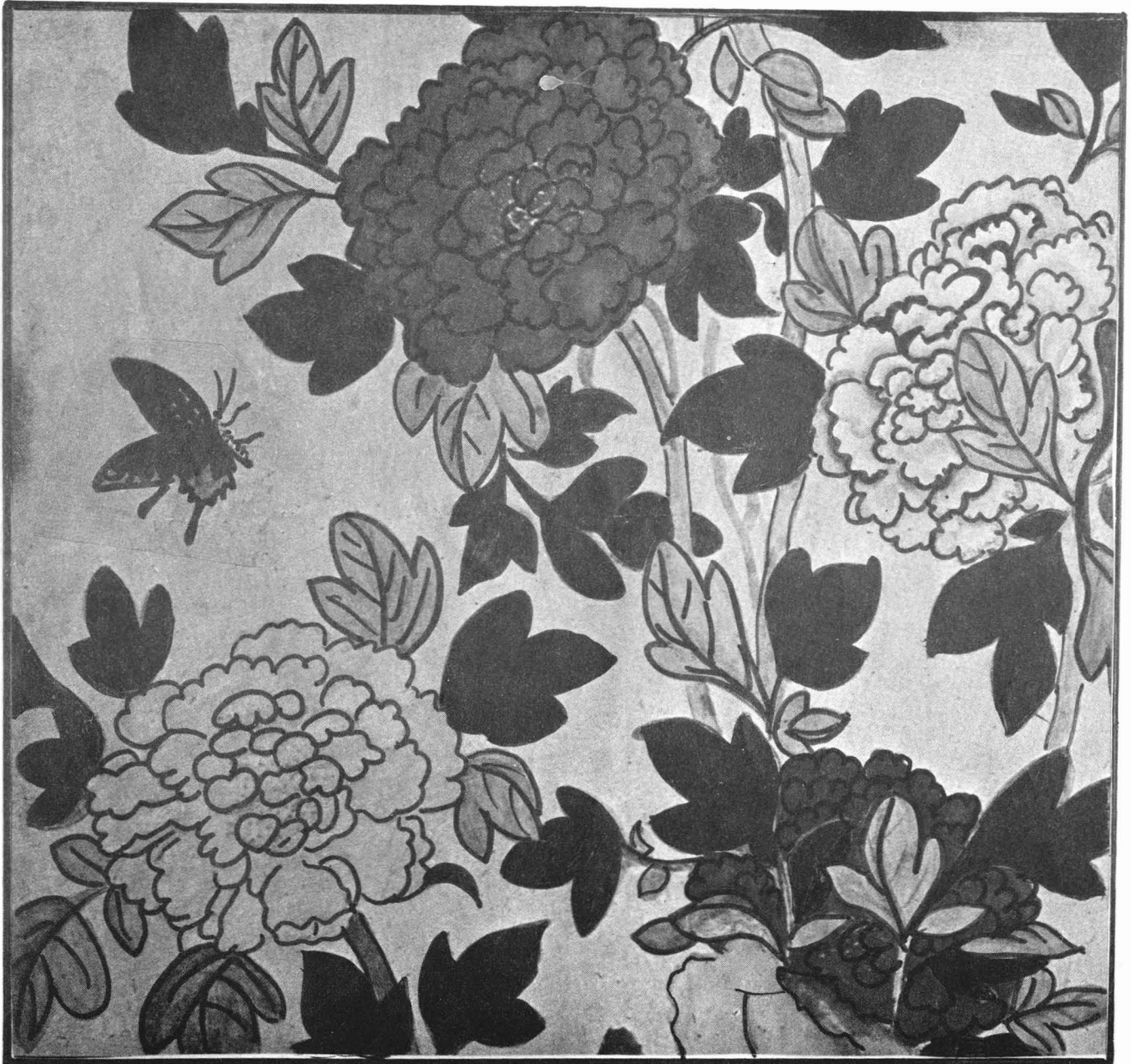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Sung Ok Cho Publisher

M. O. Han 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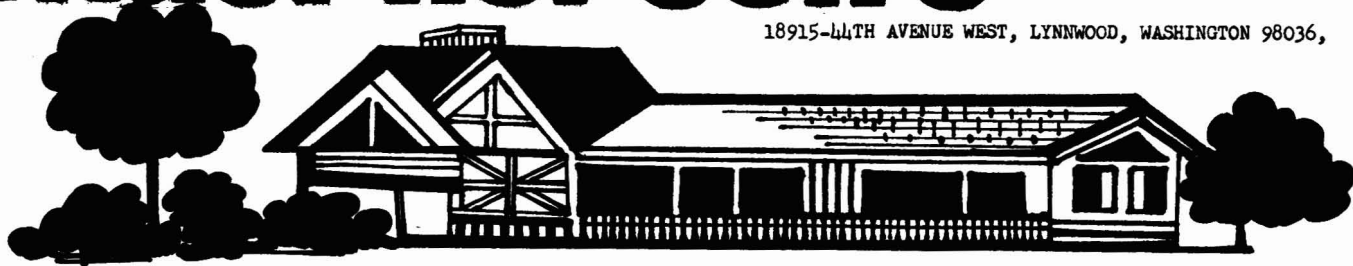
VOL. 8 NO 2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February 1979



# 맥 펄선 부동산 MacPherson's

18915-44TH AVENUE WEST, LYNNWOOD, WASHINGTON 98036,




주택매매. 각종투자 알선

대규모 지역 취급.

김순자 (MRS. 김 현중)

전화 집: 774-7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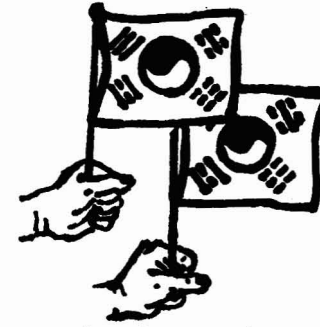
사무실: 778-2101



**김현중 부동산**  
(FRANKI HYUN CHONG KIM)

• 부동산: 모든 것을 알선 서비스.  
• 부동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동산: 컴퓨터·어파트·호텔·단지  
• 정보·커리어·투자안내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 3.1절 행사

올해로써 60주년을 맞는 3.1절 기념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교포어머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기미 독립 선언문  
(己未獨立宣言文)

吾等(오등)은 茲(자)에  
我(아)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  
(자주민)임을 宣告(선언)하  
노라. 此(차)로써 世界  
萬邦(세계 만방)에 告(고)  
하야 人類平等(인류 평등)  
의 大義(대의)를 克明  
(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 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  
(민족 자존)의 正權(정권)  
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1. 일시: 3월 3일 (토요일) 1979년.  
오후 1시 정각

2. 장소: 한인학교 강당. Lake City Community Center  
12531 28th Ave. N.E. Seattle, Wa  
(약도 참조)

3. 행사계획: 1. 기념식.  
2. 영화 관람 (문화 영화)  
3. 다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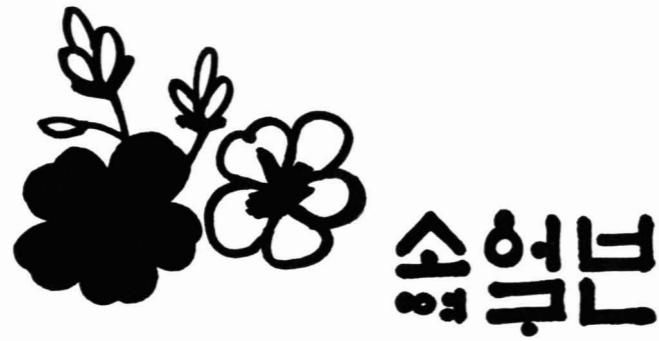
4. 상세한 문의는 한인회 (624-7604, 624-7607)  
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씨애플-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조성욱  
씨애플-워싱턴주 한인회 교육부장 김영민

## 3.1절 기념식 순서

- |                         |                |
|-------------------------|----------------|
| 1. 개회사.                 | 7. 기념사 (총영사).  |
| 2. 국기에 대한 경배.           | 8. 3.1절 노래 제창. |
| 3. 애국가 봉창.              | 9. 만세삼창.       |
| 4.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10. 폐회사.       |
| 5. 독립선언문 낭독.            |                |
| 6. 식사 (씨애플-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                |

# 한인 학교 개강



그 동안 겨울방학을 가졌던 한인 학교가 오는 2월 10일 개학을 맞이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래에 한인 학교의 장소와 위치를 기재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 이들이 한글교육 즉, 나의 말교육을 바르게 받을수있는 한인 학교 교실을 많이 이용하여 한인 학교가 교포 어린이들의 앞찬 배움의 터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학 날짜 : 2월 10일 (토요일)

수업 시간 : 오전 9시 - 정오 12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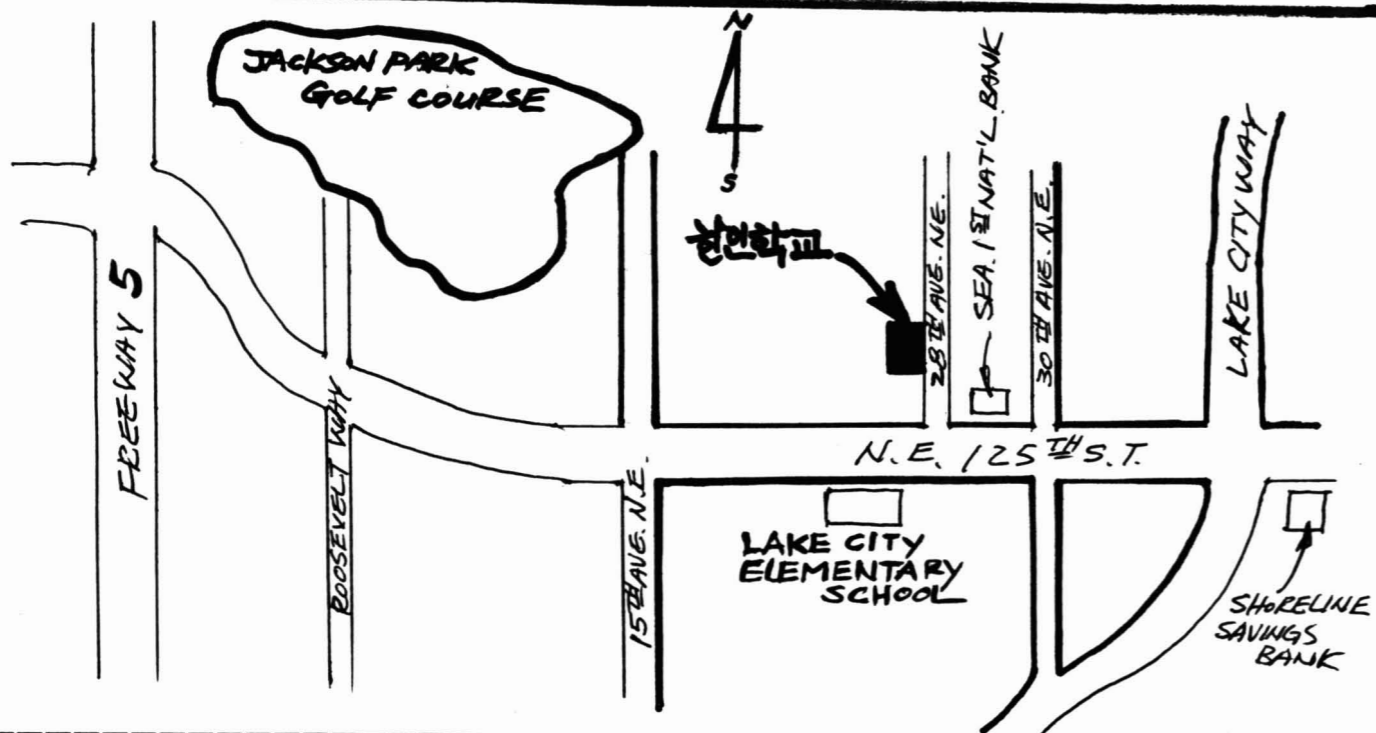
장소 : Lake City Community Center

12531 28th Ave. N.E. Seattle, 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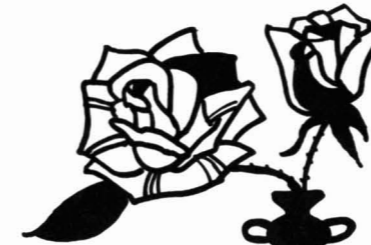
한인 학교 교사명단.

장학일선 선생님. 이희경 선생님. 김영숙 선생님.

윤학덕 선생님. 한인회 교육부장 김영민.



## 사업 동정



### "소니아 꽃집" 개업.

그간 씨애를 다룬 마음에 있는 "브리시" 꽃집에서 꽃꽂이 디자이너로 입하셨던 노길선 씨께서 결혼식에 필요한 꽃상단, 드라이 꽃꽂이, 생화 주문 등으로 우리교포들에게 특별임 가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조재선 씨에게 사사를 받았으며, 일파소 (텍사스주)에서 꽃디자인 예술학교를 졸업하신 노씨는 현재 SEA-TAC MALL 안의 꽃집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니아 꽃집" 개업과 함께 교포 어르신들께 특별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연락전화 : 838-4277 (저녁 6시 이후와 주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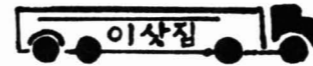
주소 : 4917 S.W. 325th Pl. Federal Way, Wa 98003



### "보리아 하우스" 개업

한국식품을 경영하셨던 강 배원 씨께서 씨애를 시내의 4가와 워싱턴가 사이에 "보리아 하우스"를 4월 20일부터 개업 한다고 합니다. 손주 한우리 한국음식으로 어르신들 대접할 것 이라고 하며 교포 어르신께서 고향의 맛을 볼수 있는 유일한 한국이 될것입니다.

### 사무실 이전.



유나이티드 여행사가 South West 의 콰이브.센타에 위치한 하기의 장소로 이전했음을 알립니다.

장소 : 9834 16th Ave. S.W. Seattle, Wa 98106

연락처 : 씨애를 (206) 763-2525  
(206) 838-3498



### 조병규 치과 의원 개업.

D.D.S. 1965년 서울대학교를 졸업. 오랫동안 서울에서 치과 의원을 개업하신 조병규 씨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의 치과 의사면허증을 획득, LAKE CITY 에서 치과 의원을 개원. 한인교포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교포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도 개원하는 데 사전 문의는 전화 776-8512 (집) 이나, 363-1271 (병원) 으로 하여 주시기 바란다.

병원주소 : 12333-35th Ave. N.E. Seattle, Wa 98125

### 한인회비를 납부합니다.



한인회비는 한 가정에서 년 15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다 조그마한 협동심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끌 모아 댁산"이라는 말과 같이 모두가 힘을 합하면 한인회 운영을 잘해나갈수 있습니다. 한인회는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선박으로써 한인교포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며 수입원이 없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봉사선박운영, 회보발행등 적지않은 경비를 충당하는데에는 어르신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무관심하게 지난다면 한인회사는 힘을 발휘할 길이 없습니다. 기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때 부끄럽지 않은 한국인으로 살아야 하지않을까요? 오늘날까지 한인회비를 보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이 일에 무관심하게 지내시는 교포들께 협조를 바랍니다. 보내실 때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시되 수표에는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한인회비 납부자

2. 송준 : \$ 15.00
3. 문유기 : \$ 15.00
4. 양매송 : \$ 15.00
5. 황성목 : \$ 15.00
6. 정연직 : \$ 15.00
7. 김종진 : \$ 15.00
8. 김기영 : \$ 15.00
9. 권택희 : \$ 15.00

### 일반기부금 납부자

- 황창표 : \$ 5.00
- 박춘자 : \$ 5.00
- 혜진. Montoya : \$ 200.00
- LT. COL. EDWARD H. : \$ 10.00
- 노명조 : \$ 100.00
- 무익진흥공사 K.O.T.R.A. \$ 100.00
- 오준걸 : \$ 5.00
- 송종성 : \$ 5.00

### 편집후기

교포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한인회 봉사선박 이전, 3.7집 행사, 계획 개정안에 따른 임시총회, 한인 학교 개강등 이번호에는 알릴 것이 많았습니다. 이번호는 우리교포 어르신 한분 빠짐없이 회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호에서 볼때까지 건강하신후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호에 글 써주신 안성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회보작성을 도와주신 봉사선박과 남택영 씨께 감사드립니다.

한명옥.

# 씨애틀 S.W. 지역 화이트센터 중심가에 위치한

# 중앙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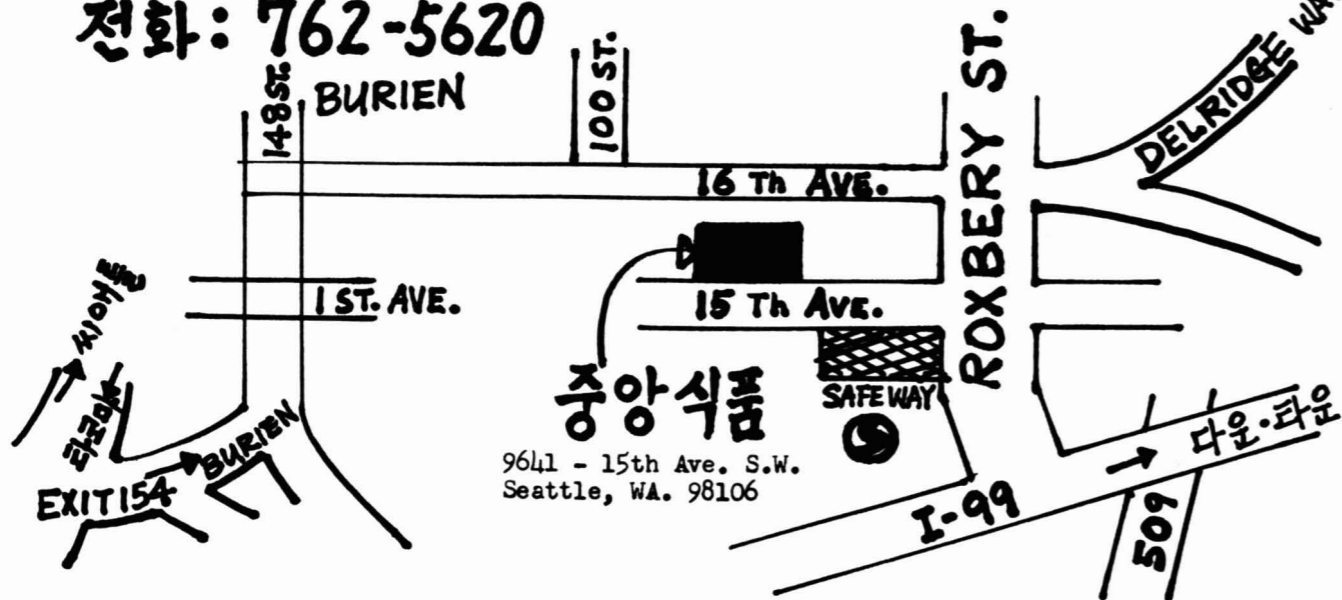


새해를 맞이하여 고포 어러분 가정에 행운을 빕니다. 금년, 새로이 중앙상회를  
인수하여 정력차 입일이 인사를 못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친절,  
신속, 저렴한 가격으로 어러분의 기대의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 할 것이오니  
고포 어러분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 친절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한국 식품 · 밀반찬 · 생선 · 인삼 · 녹용  
선물용품 (한국에서 직수입) 기타 생필품 일체  
소고기(불고기). 갈비(가정용. 파티용)

영업시간 : 평일 9:30 - 8:30 일요일 10:00 - 8:00  
전화: 762-5620



# 공 고

## 임시총회개최



이날 3.1 집행사에 이어 "임시총회" 가 열림.  
1973년 9월 15일 통과 채택된 종래의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회칙을 보다 유효하고 실용성 있게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제안하며, 이에 임시총회소집을  
공고합니다.

### 회칙 개정안.

- 제 10조: 회장단의 직무 및 임기.  
헌재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수행한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입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 10조: 회장단의 직무 및 임기.  
개정안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수행한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제 11조: 임원회.  
헌재 본회의 사무의 집행 및 집행을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제 1항: 임원회는 회장단과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총무, 재무, 편집, 부녀,  
교육, 봉사, 회관 건립, 체육, 이상 8부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 11조: 임원회.  
개정안 본회의 사무의 집행 및 집행을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제 1항: 임원회는 회장단과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총무, 재무, 편집, 부녀,  
교육, 봉사, 체육, 홍보, 청년, 이상 9부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 12조: 이사회.  
헌재 본회의 예산을 심의하고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중요정책을 결정하며 회장단의 직무집행에 조연  
을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의 수는 필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제 1항: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6명의 이사와  
자동이사로서 구성하되 자동이사는 다음과 같다.  
가) 한인회 정. 부회장  
나) 워싱턴주에 있는 한인계 비영리 단체중에서  
한인회 정회원이 30명 이상 속해있는 단체는 1명,  
50명 이상일 때는 2명의 대표를 본회이사로 서면으로  
추천파견해올 경우에 이사회가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한다.
- 제 12조: 이사회.  
개정안 본회의 예산을 심의하고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중요정책을 결정하며 회장단의 직무집행에 조연  
을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의 수는 필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제 1항: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6명의 이사와  
한인회 정.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개정안: 제 13조 (제 3항 삽입)  
제 3항: 한인회관 건립을 위하여 공동회에서  
회관 건립위원회를 설치한다.
- 개정안: 제 32조 (삽입) - 부칙  
제 10조의 개정된 임기는 1981년도부터 유효하다.
- 개정안: 제 33조 (삽입) - 부칙  
본 회칙은 1973년 9월 15일 임시총회에서 통과  
채택되었으며 1974년 10월 5일 임시총회에서  
일부 개정되어 1975년 11월 8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수정된 것을 1979년 2월 7일 임시총회에서  
일부 개정되어 유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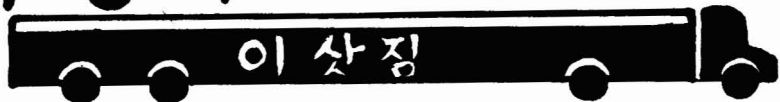
1979년 2월 7일.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1979년 2월 7일.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회칙 개정위원장: 한 만섭  
위원: 김헌중  
위원: 문유기  
위원: 이영상

# 한인회 봉사센터 이전 안내



씨애클-워싱턴주 한인회 사무실이 아래의 장소로 이전합니다.

이전 날짜 : 1979년 3월 1일.

이전 장소 : 1725. S.W. ROXBURY SEATTLE, WA 98106

P.O. BOX 주소는 전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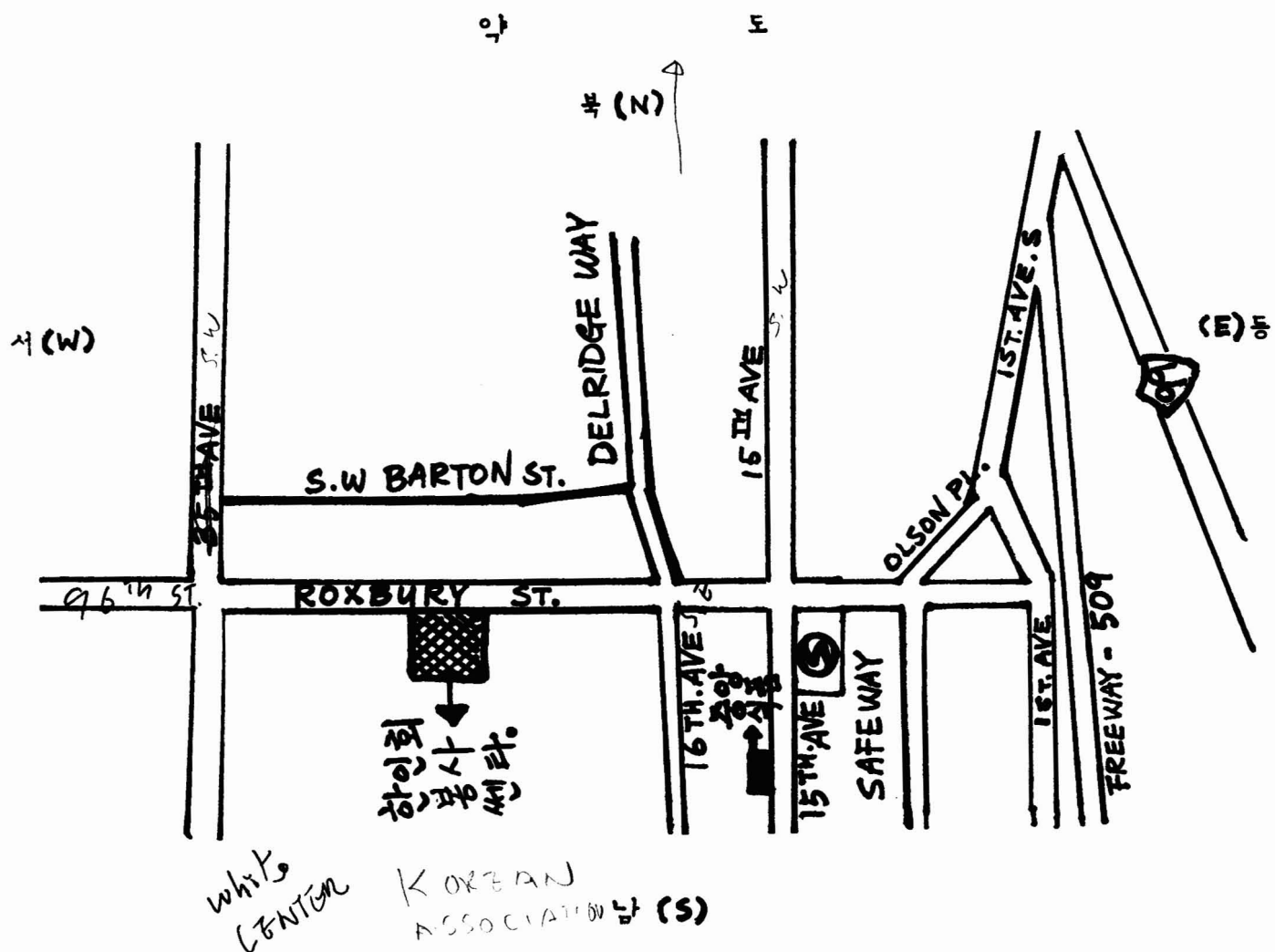
새 전화 번호 : 3월 한인회보에 추후 발표.

한인회 봉사센터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종전의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의 봉사센터 근무시간을 지난

2월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근무시간으로 연장하여

고포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1979년 1월중 씨애클-워싱턴주 한인회의 이모저모.

..... 이번 달에는 새주소특별간의 준비를 하기 위한 주소변경 확인으로 보내는 시간이 적지 않았는데도 한창은 더 걸려야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고포수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



..... 지난번 밤스.마켓을 경영하시는 박운호씨가 한인회 사무실에 전화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미국인 메네저가 속 씩여서 네보내야겠는데 영어부족이라는 이유로 속짜는 면허를 내주는 곳도 아니 어떡하냐"고. .... 27세이상이고 건강상 문제가 없는 성인이면, 면허를 내 준다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하니 이유가 안되는 것 같아 면허 내는 곳일 것이다. 면허내는 곳의 한 미국인 직원이 맘도 못 하는 사람을 (자기는 미국인이어서 영어를 하는 줄 모르는지) 합부로 보는데 어머니는 식의 배도가 꽤 심하기만 하다. 더 확실한 것을 알고자, 이곳의 총 책임자를 만났다. 술에 대한 법이 기술된 책자를 보여주며 그것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영어를 잘 모르면, 미국인처럼 알 수는 없는 것이니, 지금 이 한국인은 영어가 좀 통할 때까지 술짜는 것을 보류하던지, 영어하는 메네저를 하나 두던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다. 박운호씨께 설명을 드리고 캐시어 한 사람을 새로 구하기도 결정했다. 캐시어를 원하시는 분은 (영어에 능하고 27세 이상의 분. 미국인도 가능.) 전화 243-7040 으로 연락요함.

..... 1월에는 이론에 관한 법적 절차의 질문이 그동안 다른 때 보다는 많았다. 합의 이론이라는 조건을 수긍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나, 선택의 자유를 너무 남용하지 않는 이국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 의향선에서 일을 하셨던 고포 두분이 먼저 씨애클. 제너럴 병원과 버지니아.메이슨 병원에 각각 입원중이며 한국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 아무 들보는 이 말이 많지 않다고 답답해 하며 있는 환자에게 사무적인 이야기 (통역) 외에 위로를 줄며 애스나 오미역 내에서 검언적으로만 치병과 싸워 이기겠다는 자세만 볼 수 있어서 기분 마음이었다. 두분 밤터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간곡히 빠편이다. 몸매는 신김치맛 (병원에서 입하시는 고포 한분이 가져다 주셨다함.) 이 골맛이라고 해서 웃었다.

..... 작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했던 유인중씨의 법적 처리가. 1월 말로써 끝났다. 그동안 걱정을 많이 하셨던 유씨는 씨애클-워싱턴주 법률 고문 변호사 Mr. Gordon. S. Clinton 의 도움으로 한인봉사센터와 함께 일을 처리 해왔었다.

..... 1월의 봉역 건수 : 입주평균 10건 (대인 및 전좌도)

..... 정보 제공 : 하루평균 8 내지 9건.

..... 번역 (서류 기재 등) : 6건.

..... 직장압선 : 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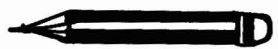
..... 직장상담 및 일반상담 : 필요때마다 수시로 했음.

..... 한인회 사무실에는 한국인 연락생한분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 이분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 씨애클-워싱턴주 한인회 이사장 김현중씨는 북구지역 (Everett) 한인들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기를 요망한다고 합니다. 연락전화는 774-7828 (김현중).

밤스.마켓을 경영하시는 박운호씨는 지난 1월 28일 구정을 맞이하여 쌀 80파운드를 불쌍한 이웃에 전액 기부하고 한인회에 기부 하셨습니다. 그동안 편치 못한 도움도 필요하셨던 박영옥 할머니께 쌀을 전액 드리고 박운호 씨의 고운 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 한인회 회의 동정



1월중 씨애클 한인회에서는 이사회를 세 번 가졌고, 임원회를 두 번 가졌다. 이사회에서는 회칙 수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칙 개정안을 내었고 한인 학교 계약 및 한인회 봉사센터 이전을 결정했음. 또한 3.1절 행사와 이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며 회의를 마쳤다.

1차 이사회 참가자 : 조성옥 한인회장, 김현중 이사장  
2차 이사회 참가자 : 조성옥, 한만심, 김현중. (이명상 부회장은 이날 위임장을 전달하였고, 조요한 이사는 교통사고로 불참식하였고, 김정부 부회장은 불참식을 연락하였음.)

3차 이사회 참가자 : 조성옥, 이명상, 김현중, 한만심, 문유기. 임원회에서는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설립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또한 한인회 예산을 확정하였고 한인 학교 계약 및 통학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차해 임원회는 전원 참석 모두 바쁘지만 한인사회를 사랑하는 한 가지 마음으로 직장이 끝난후 밤늦게 까지 가지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우리 임원. 이사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국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우리 모두 사랑하고 돕는 한인사회로 지속되어야 하겠다.

**"알림"**

시민권 취득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강의를 무료로 받을수 있습니다. 씨애틀 5가에 자리하고있는 메트로폴리탄비즈니스칼리지(College)에서 일주에 2회씩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한국인, 중국인, 일본 등...)에게 무료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신청서는 한인회 사무실에서 받으실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인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인회 전화번호: 624-7604, 624-7607

**동창회**

성동고등학교 동창회에서는 동창회외의 연락을 바란다고 합니다. 연락전화는 씨애틀 지역: 747-9898 883-6022



마코마 지역: 582-9537 582-3861

성동고등학교 워싱턴주 동창회장 임 한조

워싱턴주 한국 학생회 주최로 영화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영화제목: 만종일기.

심혼.

집념.

때: 3월2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University of Washington HUB Auditorium

입장료: \$1.00(1불).

(영화상영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으로 최소경비를 받는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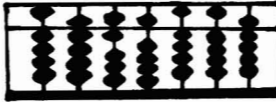
운 부원씨의 부군이신 Mr. Brown께서 작년 12월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증을 따시고 한인교포들에게 성의껏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Mr. Brown의 연락전화는 774-8927

**전자제품 조립공 모집.**

보잉의 전자제품 부속회사에서 조립공을 모집하는데 관심있으신분은 한인회(전화: 624-7604, 624-7607)나, 김현중씨(전화: 774-7828)께 연락 바랍니다.

**인컴.텍스 보고.**

안녕하십니까? 이규영 계리사의 이규영입니다. 인컴.텍스 를 보고하는데 알아야 할 점을 아백에 기재하며, 고포어려분들이 인컴.텍스 보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니, 상세한 것은 저의 사무실(623-9290, 322-378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인컴.텍스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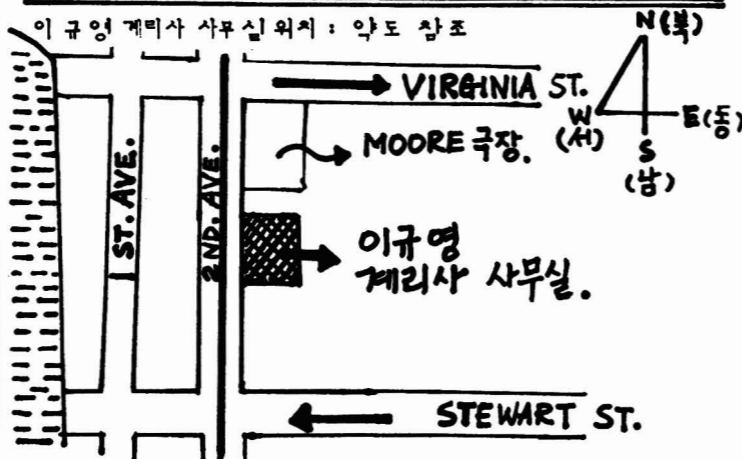
1. 개인 사업을 하시는분은 손이익이 \$400.00 이상.
2. 일반 개인 직장 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부의 수입이 \$4,700.00 독신자는 \$2,950.00 이상이면 누구나 모두 인컴.텍스 보고에 응해야 합니다.

비록 위에 적은 사항에 미달될지라도 각 개인의 장래수입에 비추어서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 5년 마다 또는 10년 마다 평균수입에 의존해서 세금을 부여받게 되므로 첫째 적어도 꼭 보고하시는 것이 좋고 각 인컴.텍스 보고 사본은 또한 적어도 5년 씩은 보관하는 것이 위의 사항에 적합할수 있으니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사람들은 처음 미국에 이민 오시면 언어나 기타 취업 기술이 충분치 못해 한 두해 수입이 적을수도 있으니 5년째 되는 해에 이 평균 수입세금 계산 방법을 사용해보는 것도 커다란 이익이 됩니다.

또한 한국분들께서 꼭 유의하실 사항은 어린 애들을 가지신 부모 들께서는 애들을 Baby Sitter 에 맡기는 경우 꼭 수표를 발행하시거나 영수증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분들께서 Baby Sitting 일을 하시는분들께서도 현찰을 받기를 원하시는분이 많으시고 텍스를 보고하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린 애들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들께서 세금보고상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이니 서로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한부모께서 두 어린애 비용으로 \$2500.00 이 입년에 지출된다고 하면 이 부모들은 세금에서 직접 \$500.00 이라는 돈을 공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볼때 아이들을 맡기시는분이나 아이들을 돌보시는분이 이러한 사실로 서로 피해가있다거나 기분나쁜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규영 계리사 사무실 위치: 약도 참조



**"바람직한 마음"**

글: 조성욱

정직의 취업.  
대지의 소음을 한껏 나의 영속에서 봄아버리고  
한껏 음미한 20대 참단의 문명의 지혜를  
나의 두뇌속에서 송두리채 봄아버린  
조용하고 존엄한 늦밤입니다.  
자기의 연분마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일에 단계를  
미백의 계획마저 송두리채 상실해버린  
그저, 한없이 아하고  
한없이 착해보고 싶고 그리고  
한없이 이유없는 대박을  
나누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난 몇년분의 이민생활에  
그저, 묵묵히 살아왔었다는  
어쩔수없는 손고자 아닌 손고자의 과거와 이제가  
이렇게도 허탈한 감정을 감미로 느껴야 함이  
별로 놀랍거나 신기하거나 함이 없이 당연함을 줍니다.  
완전한 백치라고 말해도 무관합니다.  
의식의 필요성을 완전히 망각한 태연입니다.  
가치의 필요성이, 비중의 필요성이  
아예 필요 저 먼곳 밖의 것들입니다.  
아주 요원한 곳에서  
영상의 의미마저 부정하고 있어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가 그러했듯이  
어제부머의 연결이나  
내일로의 향함에 그저  
목연한 찬사를 의식 없이 보내주고  
그러므로  
실존의 존엄과 자연의 체취에  
가장 순수한 예측물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이토록 정화된 마음의 찬사를  
이웃들에게  
마음껏 던지고 또 던지고 싶습니다.  
대가의 여지는 그저 요원한 데 위치하여 있습니다.  
영상의 의미는 형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토록 진공화 된 마음의 매도에서  
그냥 마음껏 주어야만 보고 싶은  
이런 꿈속에서  
영원이 이웃과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활 없는 어린아이들의 미소와도 흡사하고  
백치의 무궁한 만족일런지 모릅니다.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지난 7월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로 조성욱 회장은 United Way 에 자금 요청을 하였다. 또한 카운티와 시청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자금을 요청 하였다.

**소수 민족 인권문제 청문회 개최**

청문회 개최 장소 New Federal Building, 4th Floor South Auditorium, 915 2nd Ave. 미연방인권위원회 워싱턴주 자문위원회 (The Washington State Advisory Committee to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에서는

오는 3월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인권침해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소수 민족(마이너리티)의 인권문제를 중점적으로 취급하는데 특히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인권을 유린한 사례를 청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합니다. 한인교포들중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험을 가지신분은 이 청문회에 참석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경찰이 불공정하게 처리했거나 처벌대우 또는 부당하게 미련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절도, 강도, 또는 기타 범죄사건이 발생했을때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미온적이거나 직접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경찰에 연행되었거나 심문을 받을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때 또는 소송절차를 취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경찰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공갈, 협박 또는 방해 받은 일이 있는 경우. 위와같은 일을 당하신분은 청문회에 나와 인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영어가 불편하신 분에게는 인권위원회에서 통역자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시간관계로 청문회에 나갈수 없으신분들은 한인봉사센터(전화: 624-7604, 624-7607) 또는 DPAA (322-0203 박건홍)에 연락하여 구두라도 당하신 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442-1246 (Mr. Eugene Mochizuke) 또는 322-0203 (박건홍)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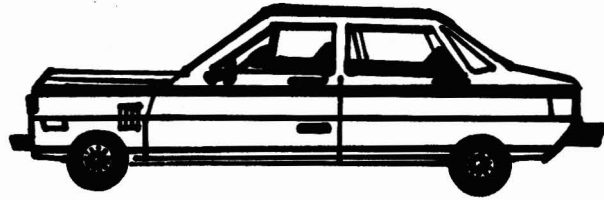


**킹와 레스토랑 (KINGWHA RESTAURANT) KINGWHA**

북경음식전문. 정음.맥주  
김혼식 피로안, 환갑.축잔치, 생일 파티등의  
단체 손님환영 (90석 마련)  
영업시간: 화요일-목요일: 오전 11:30-오후 2:00  
오후 4:30-9:30  
금요일: 오전 11:30-오후 2:30  
오후 4:30-11:00  
토.일요일: 오후 4:30-11:00

주소: 605 S.W. Burien (Tel. 243-0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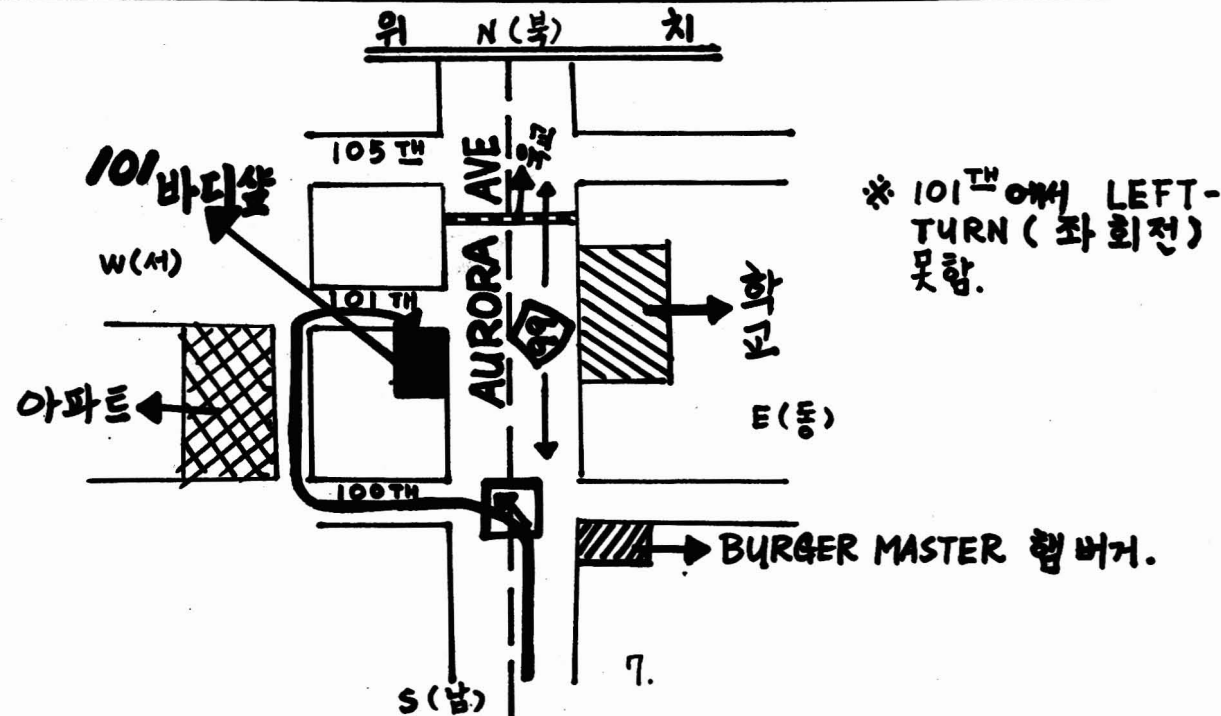
# 001 바디샵



**차체수리 및 페인트 무료 토잉**  
**무료 전적 보험수리시문의환영**  
**고포분들에게 수리비를 절감해 드립니다.**

주소: 10059 AURORA. N.  
 SEATTLE. WA. 98133

공장: 525-5778 집: 789-2655 집(NORTH): 367-0954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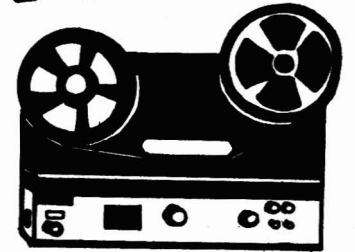
인간의 자기진실(自己眞實)

글. 안성진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즉, "피어진 그대"의 자신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자기가 그것을 볼 줄 모를 때 남이 그것을 먼저 보면 어떤 단점이 보여진다. 그렇기 되면 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되듯이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모면하기 힘든 자제 압정에 빠져버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모면료가 붙어진다든 것도 되지만 "자기검판"의 좋은 기회마저도 상실되어 버린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란 "피어진 그대"의 자기"를 볼 줄 안다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커다란 오인들이 있다. 그 첫째가 "배임" 때문에 생기는 "자기도취"라고 볼 수 있다. 제각각 만들어 낸 남이 만들어 써버린 그 "배임"이란 것이 자기를 가늠해볼 때 "자기진실"을 막아주는 심한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옛날 그대도 누구나 "저 장난맞이 산다"는 각인에 예외자(例外者)는 없는 법이다. 즉, "자기도취"라는 배임속에 가늠해져 산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위험신호 앞에 선 생명과 같은 골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진실을 위해 항상 마음을 가다듬지 않는 한 언제나 자가당락을 빚어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피어진 그대"의 자기"와는 당해도 않은 무용을 앞부분. 아다가 제발에 걸려 넘어지는 딱히의 일들이 비일비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써버린 "배임"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까닭도 있지만 "자기도취"에 빠져 사람마저도 볼 수 없게 되는 까닭도 있는 이야기이다. 어긴, 고포하게 몸을 써서 사람들을 도취시키는 경우도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오해가 없는 법이다. 그래서 사람은 너, 나 할 것 없이 뒤틀어 진 가면이 자기에게도 붙어 있다는 것을 자인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가면속에서 숨겨져 있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항상 주시(注視)할 수 있을 때 "자기도취"만 위험신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줄 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만 인생의 금언이 "덤프이 신전" 때 미성령에 오늘날까지 아도 새겨져 있는 줄 안다. 이 말은 물론 고대 로마의 침묵 연인중에 하나인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한 금언일 수 밖에 없으며 인생을 숨겨줄 개사는 대개 명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금언을 그의 철학에 "모모"로 삼은 줄 안다. 그러므로 그가 써우에 남긴 법정진술 역시 다른 말이 아니었다. "남마다 덕을 말하는 것은 인간적덕의 행복이요, 남마다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인간적고의 삶 이니" 만 말이었다.

그렇다. 인간은 생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인간을 "음미"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을 음미"한다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돌본다는 말로 집약이 된다. 즉, 자기의 정신과 혼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말이다. 집도 돌보고 건강도 돌보고 가족도 돌봐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이고, 정신이요, 인격이요, 양심인 것이다. 특히, 모국을 떠나사는 이민자(移民者)들에게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모든 주위 환경이 "인간음미"를 망각하기에 가장 알맞은 상황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 정신보다도 물질, 물질보다도 돈을 양심보다도 쾌락, 진리보다도 명성(名聲)을, 지역보다도 유흥을 돌보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이민 생활의 일차 무손말을 더 하냐? 이것이 바로 위험신호 앞에 선 이민자의 아늑한 수 없다. 가치가 적은 것을 가치가 많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많은 것을 가치가 적다고 생각하는 가치전도(依值顛倒)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주객혼동(主客混同)인지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임속에 도취해낼 수는 없는 법이다. 온전히 빚겨 넣은 몸으로 홀로 애원자 앞에 섰다는 의식감(意識感)이 가장 가치있는 생활을 모색해 줄 것이다.

## 영화 감상



한국영화 상영.

오는 3월 10일 (토요일) 2회에 걸쳐 국영극 "판문점의 봄" (주인: 구봉서)를 브로드웨이 (Broadway) 서예를 선주된 캠퍼니미 캠퍼지 일역 있는 브로드웨이 (Broadway) 극장에서 상영합니다. 한국영화사와 서예를-위싱 본주한 인화의 주역도 상영되는 국영극 "판문점의 봄"의 많은 관람을 바라며, 이날의 수익금은 모두 "한인회관 건립기금"에 쓰여지겠습니다.

상영시간: 3월 10일 (토요일)  
 1회 상영: 오후 12시 30분.  
 2회 상영: 오후 3시 30분.  
 입장료: 성인: 3불,  
 학생: 2불.



# 그랜드 식품



저렴한 가격 · 신선한 식품 · 친절한 봉사

"미래를 지향하는 그랜드 식품점, 저혁 그랜드 식품도  
 나 날이 발전하는 시애틀 교민 여러분 속에. 고국의 맛을 성심껏 전해 드릴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있는 최선에 방법을 다 하려고 오늘도 온정성을  
 다 하려고 하옵니다. 아울러,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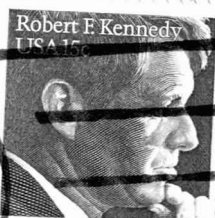
감사 하옵니다.  
 갈비와 불고기는 미리 주문해 주세요.  
 "단체 주문도 환영 합니다."

8512 20TH AV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 (206) 525-8334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NON-PROFIT ORG  
 PAID  
 FEB 28 1979

SEATTLE, WA 981  
 PM  
 FEB 28  
 1979

SEATTLE, WA 981  
 PM  
 FEB 28  
 1979

TO: DR. M.S. HAHN  
 12904 S.E. 45<sup>TH</sup> LANE.  
 BELLEVUE, WA 98006